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5.40원 내린 1,105.30원에 마감

이날 환율은 오전 중 전일 대비 1.20원 내린 1,109.50원에 개장하여 장 초반 저점 인식에 따른 결제 수요로 1,113.50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위안화 강세 등에 상단이 제한되며 1,111원대에서 횡보하였다. 오후 들어 호주중앙은행(RBA) 기준금리 동결에 호주달러가 달러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고 역외 위안화 가치 또한 두달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며 환율은 1,110원을 하회하였다. 또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개월래 저점으로 하락하고 장 후반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로 전환하자 환율은 하락 폭 커지며 5개월여 만 최저치인 1,104.90원까지 하락하였고 1,105.3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977.49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09.50	1113.50	1104.90	1105.30	1109.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77.03	981.79	974.92	979.54

금일 전망

리스크오프 분위기 속 1,110원대 상승 예상

금일 환율은 리스크오프 분위기 속 1,110원대 상승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05.30원) 대비 6.75원 오른 1,110.60원에 최종호가 됐다.

간밤 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2-10년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11년래 제일 좁은 폭을 기록해,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심리로 번지며 미국 증시가 간밤 3% 넘게 폭락하는 등 리스크오프 확산되어 금일 환율은 1,110원대로 다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관세맨(Tariff man)이라며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커지며 달러원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반등 및 저점 결제 수요 등이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역외 위안화 강세 보이고 있는 점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07.80 ~ 1116.4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234.42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75원 ↑

■ 美 다우지수 : 25027.07, -799.36p(-3.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1.5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6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